

영화 '마스터' 언론시사회 통해 첫 공개

세 캐릭터 연기력 인상적 연말용 오락영화로 손색없어

이병헌·강동원·김우빈 출연으로 관심이 집중된 영화 '마스터'(감독 조의석)가 12일 오후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마스터'는 연말용 오락영화로 손색 없는 작품이었다는 평가다.

두 시간이 넘는 다소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았고, 20·30·40대를 대표하는 세 배우의 연기 또한 인상적이며, 의외의 메시지 또한 꽤나 묵직하게 다가왔다.

◇간결하고 빠른 연출...조의석 감독의 주특기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조의석 감독의 연출이었다. 조 감독의 연출 방식은 전작인 '감시자들'(2013·550만명)과 유사했는데,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사족 없이 시작해 끝고 빠르게 전진해 관객이 틀 돌릴 새 없이 몰아쳤다.

리듬감 있는 편집과 사건과 사건의 빠른 연결이 러닝타임 내내 이어졌고, 진지함과 유머를 섞어 지루함을 없앴다.

액션 장면이 많지 않지만, 극이 절정에 치달을 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며 효과적으로 배치·활용했다. 클로즈업을 주로 쓴 마지막 카 액션 시퀀스 또한 역동적이었

다. '마스터'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 구조인데, 1부는 한국에서 2부는 필리핀으로 로케이션을 확장한 부분도 눈에 띈다.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지만, 필리핀 현지 촬영은 시각적으로 새로움을 줘 극에 활력을 더했다.

◇이병헌·강동원·김우빈...선명한 캐릭터 연기

캐릭터의 힘이 예상보다 강력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스터'의 세 등장인물 진현필(이병헌), 김재명(강동원), 박장군(김우빈)은 복잡한 인물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입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그들은 선명하다. 이 선명함이 '마스터'의 장점이라는 것이다.

진현필은 '약'이고, 김재명은 '선'이며, 박장군은 '악'과 선을 오가는 '박격부'다.

이런 캐릭터 구도는 이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마스터'는 균형을 잡는 데 성공한다. 진현필은 자신의 사기에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인물, 김재명의 수사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다.

박장군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다. '마스터'의 캐릭터 균형은 좋은 배우들을 만나 빛을 발한다.

이 작품에서 이병헌의 연기력을 논하는 건 무의미할 정도로 그는 극에 온전히 무게중심이 된다. 강동원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인물을 담백하게 소화하고, 김우빈은 그가 왜 이병헌·강동원과 함께 연기하는



이병헌·강동원·김우빈 출연으로 관심이 집중된 영화 '마스터'(감독 조의석)가 12일 오후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지 스스로 증명한다. ◇의외로 묵직한 메시지

'마스터'에는 과장되지 않은 메시지도 있다. 영화는 비정상이 정상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요하거나 주입하지 않기에 울림이 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건 강동원 연기한 지능범죄수사대 김재명 팀장이다. 김재명이 팀원들에게 영국 수상 처칠의 일화를 들려주는 오픈닝 시퀀스에도 드러나듯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점의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다. 진현필을 잡는 건 경찰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재명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는' 인물일 뿐이다. '마스터'를 사회 비판적인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담백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뉴스

익산시청 권영준 선수, 펜싱 국제대회 금메달

익산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권영준 선수가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6 카타르 도하 국제그랑프리선수권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익산시청 소속 권영준 안성호, 송재호 선수가 출전했다.

권 선수는 8강에서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상영 선수를 15대 12로 꺾고 준결승에서 에스토니아의 니콜라스 노보솔로프 선수를 15-13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결승에서 프랑스 알렉산드르 베르네세 선수와 접전을 벌이며 15-13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현을 익산시청은 '부담없이 컷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익산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권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권선수와 함께 출전했던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익산시청 소속 여자 사브르의 김지연, 최신희, 황선아 선수는 오는 18일 '2016 멕시코 칸쿤 국제그랑프리펜싱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또 한 번의 금메달획득이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영원기자

빅뱅, 8년만에 정규 3집 음원 차트 휩쓸어

내년 2월 앨범 발매의 근엄대를 앞두고 있는 한류그룹 빅뱅이 13일 공개한 정규 3집 '베이트 풀 앨범'이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신곡 '에라 모르겠다'는 이날 뽀빠이, 네티즌, 지니, 엠넷, 빅스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의 8차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신곡인 '라스트 댄스' '겔프렌드는 에라 모르겠다'에 이어 나란히 2위, 3위에 오르며 '음원차트' 출세우기를 기록 중이다. 정규 앨범만으로도 따지면 8년 만에 발표한 앨범이다.

신곡 3곡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간 매달 선보여 역시 음원차트를 석권한 '뽀빠이', '루저', '베베', '뽀빠이',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등 '베이트 시리즈' 음원 8곡도 포함됐다. 이 곡들 역시 이날 다시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베이트 풀 앨범'은 동시에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코스타리카, 핀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니카라과,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등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4위를 기록 중이다.

/뉴스

아델, 영국 'BBC 뮤직 어워드' 2관왕

팝스타 아델이 올해 영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가수가 됐다. 아델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액셀 런던에서 열린 'BBC 뮤직 어워드 2016'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발매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정규 3집 '25'로 '올해의 앨범', 이 앨범에 실린 싱글 '헬로' '올해의 노래' 등 주요상 2개를 휩쓸었다.

내년 4월 첫 내한공연의 예매에서 각종 신기록을 쓴 영국 록밴드 '홀더스레이크'는 올해의 아티스트로 뽑혔다.

올해의 퍼포먼스는 영국 그룹 '왓 메이크스 유 뷰티풀'을 커버한 밴드 '더 1975'가 받았다.

신인상 격은 올해 소개할 만한 뮤지션으로는 영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이지 비주가 뽑혔다.

/뉴스

전북현대모터스, 클럽월드컵 5위 결정전

오늘 아프리카 챔피언 마멜로디 선디운스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늘 아프리카 챔피언 마멜로디 선디운스(남아공)와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5위 결정전을 가진다.

전북은 지난 11일 일본 오사카 스타스타디움에서 열린 6강전에서 북중미&카리브해 챔피언 클럽 아메리카(멕시코)에게 아쉽게 1대2로 지며 5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부상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넣는 등 분투했지만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아쉬운 패배였다.

선디운스 역시 11일 열린 경기에서 개최국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가시마 에틀러스(일본)에게 0대2로 패하며 5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대회 개막전 우수한 전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선디운스는 가시마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무득점 완패로 체

면을 구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북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10년전 아시아챔피언 자격으로 클럽월드컵에 참가했던 전북은 당시에도 클럽 아메리카에게 0대0로 패한 뒤 당시 오슬랜드 시티(뉴질랜드)를 꺾고 5위에 등극한 바 있다.

전북은 이번경기의 승리를 위해 12일은 어떠한 훈련도 없이 피로를 풀기위한 휴식시간을 가졌다.

최강희 감독은 올 시즌 전북의 우승을 위해 묵묵히 뒤에서 버텨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때문에 5-6위전은 이종호, 장원호, 김영찬 등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전 경기에서 교체로 활용된 이종국과 레오나르도는 선발 출장을



예고했다.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따라 상금 여부도 크게 차이가 날 예정이다.

클럽월드컵 5위 팀은 6위 팀보다 50만 달러(한화 약 5억8,275만 원) 많은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4,825억 원)를

상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최강희 감독은 "선수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팬들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